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한 훈련혁명의 열풍과 무장장비현대화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고 국방력발전에서 전례없는 자랑찬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이룩되어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은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들의 화력전투능력을 경기진행의 방법으로 판정평가하고 훈련혁명의 열기와 성과를 확대시켜나가는것과 함께 인민군대에 장비된 경포, 중무기들의 성능상태를 료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군단장들의 힘찬 사격구령이 내려지자 멀적의 강철포신들이 일제히 불을 토했으며 목표는 순간에 불바다로 화하였다.

포사격훈련에서 박격포병들은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실전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온 나날들에 자기들이 련마한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화려지원전투임 무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된 일당백포병의 전투력을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인민군 각 군단들에서 조선로동당의 포병중사상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명포수운동

의 불길속에 화력구분대들을 현대전에 능숙하게 대비할수 있게 잘 준비시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오늘처럼 전체 구분대들이 하나같이 포를 잘 쏘는 훈련은 처음 본다고,

각 군단들에서 임의의 구분대들을 지정하여 훈련장에 집결시켜놓고 불의에 훈련을 조직하였는데 훈련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수 없다고, 마치 포탄에 눈이 달린것만 같이 목표를 명중하는데

화의 구호를 내들고 포병싸움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훈련과 포무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사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이 다가오는 이 시각 우리 겨레는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한생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나라의 장사를 토론하실 때에도, 이른 새벽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고 창조와 혁신으로 걸음은 건설자의 발걸음을 걸으시어도, 창밖에 눈비내려도 언제나 피를 나눈 겨레를 생각하시고 통일문제를 두고 마음씨 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하나의 조선!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변의 통일의지고 절대적인 신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서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위업을 성취하신것은 분렬된 조선을 위해서가 아니였다. 수령님께서 백두밀영에서 등잔불을 드시고 회복시킨 조국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산에 이르는 삼천리조선이였고 동동강간 조선이 아니였다. 하기 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직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수령님이시고 반동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격렬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밝힌 조국통일3대현장을 제시하시어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현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있다. 조국통일3대현장은 북과 남에서 다른 사상과 계도가 오해동안 존재하여온 우리 나라의 현실을 따라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산을 기어이 관철할 드림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산을 철저히 관철히지》, 《은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지》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는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높이 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린 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유산을 관철하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은 겨레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어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생활력이 확증된 조국통일3대현장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현장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 모두가 받들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질수 있

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림장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온 겨레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 조국통일3대현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나갈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하여서는 자주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의 주제는 다음이 아닌 우리 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실질적인 힘도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주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당연하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렬과 망국의 길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자주적지향에 역행하여 계속 외세의존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있는 것은 통일을 하자는 자세가 아니며 그자체가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 전쟁과 평화가 광범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결코 광범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철저히 놓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민족자주

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고 민족자주력을 다져나가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그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 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리념, 정경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는 통일애국의 한마음한뜻으로 민족대단결의 대하에 합류해나사야 한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대결적인 행위들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번의 절세위인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산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밝혀주시고 조국통일3대현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뿐만아니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 과파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어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은 민족은 절세위인과 모신 한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주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 우리 겨레의 최대원인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자말것이다.